

“탄소중립 10년 앞당긴다”

SK C&C, ‘2040년 넷제로’ 선언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로드맵 설정
매년 전력수요량 3.5% 이상 절감
ICT기술 활용 저감 솔루션 사업화

SK(주) C&C가 ‘넷제로(배출 탄소량과 제거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를 선언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SK(주) C&C는 22일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자는 넷제로 실행 로드맵을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6월, ‘2021 확대경영회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결집,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자는 넷제로 추진을 결의했다. SK(주) C&C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을 넷제로 달성 시점으로 설정했다.

SK(주) C&C는 우선 ICT 사업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99%를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에 나선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 매년 전력 수요량을 3.5%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가발전 설비를 확충해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에도 나선다. SK(주) C&C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와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통해 연간 5.7GW



SK(주) C&C 업계 최초 RE100 가입에 이어 넷제로를 선언했다.

/SK(주) C&C

Wh 분량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데 이어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 투자를 진행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고객의 넷제로 이행 지원에도 앞장선다. 통신·제조·금융·서비스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솔루션을 비롯해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시스템 등을 개발해 온실가스 관리에 직접 활용하고 사업화해 나갈 예정이다.

SK(주) C&C 구성원들도 일상 생활 속 넷제로 실천 캠페인에 참여한다. 7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관련 구성원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개인 좌석에 비치됐던 휴지통을 없애고 사무실 각 층에 분리배출 수거함을 만들어 자

발적인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안석호 SK(주) C&C 행복추진센터장은 “넷제로 조기 달성을 위해 직접 감축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활동 강화는 물론 디지털 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이라며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온실가스 관리 혁신으로 넷제로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소형 SUV 강자 ‘셀토스’, 2022년형 출시

신규 엠블럼 적용, 연식변경 모델
고객 선호 사양 하위 트림까지 확대
트렌드 트림에 ‘스타일 패키지’도

기아가 신규 엠블럼을 적용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토스의 연식변경 모델 판매를 시작한다.

기아는 22일 상위 트림 전용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한 ‘더 2022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아

대표 소형 SUV 셀토스는 2019년 출시 이후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한 더 2022 셀토스는 1열 USB 단자를 기본화하고 기존 상위 트림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던 고객 선호 사양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기본 트림인 트렌디에서 LED 헤드램프·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루프랙 등으로 구성된 ‘스타일’ 패키지를 운영해 고객의 디자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고객이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BOSE 프리미엄 사운드·라지 커버링 쉘프로 구성된 ‘BOSE 프리미엄 사운드 팩’과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 ‘하이트크’ 패키지를 확대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 ysw@



▲더 2022 셀토스

“김포서 부친 짐, 제주 숙소서 받으세요”

에어서울 ‘짐 배송 서비스’
승객 지정한 곳에 안전 운송

에어서울이 오는 26일부터 김포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부친 짐을 제주도 내 원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짐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에어서울은 22일 짐배송 서비스가 여객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짐 배송 업체인 ‘짐캐리’에서 담당한다.

짐 배송 서비스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 전일 오후 6시까지 짐캐리의 웹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짐 배송 서비스를 예약한 승객은 출발 당일 자신의 수하물 사진을 촬영해 ‘짐캐리’의 모바일 웹에 업로드한 후에 에어서울 수속 카운터에서 짐 배송 스티커를 부착해 위탁하면 된다.

제주도 도착 후에는 배송업체가 짐을 대신 찾아 승객이 사전에 지정한 장

소로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때문에 승객은 바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제주도는 최근 골프, 사이클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여행객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주공항 도착 후 짐을 찾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고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아도 바로 여행이 가능해 시간 절약과 높은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짐배송 서비스의 이용 금액은 일반 캐리어 1만5000원, 골프백, 자전거 등 대형 수하물 2만 원이다.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짐캐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 집약 KT, 양자암호 솔루션 개발

자체 개발 12개 특허기술 적용
자동으로 통합 감시하고 제어

KT가 양자암호 네트워크 기술을 고도화한다.

KT는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통합 감시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자동화 솔루션(Q-SDN) 개발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Q-SDN은 중앙에서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합으로 감시하고 제어해 최적의 양자암호키 자원 관리와 양자암호키 전달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통신망은 신호 줄기의 끊김과 이어짐으로 디지털 신호인 ‘0’과 ‘1’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보안을 위해 암호키를 사용하지만 유출되면 관련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반면 양자암호통신은 신호 줄기보다 작은 빛 양자(광자)를 이용한 통신으로 중간에 유출되더라도 곧바로 대처

가 가능해 해킹이 불가능하다.

KT는 인공지능(AI) 해킹탐지, 자동 복구, 우회절체 물리적 보안기술 등 자체 개발한 12개 특허기술도 적용해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양자암호키가 부족한 구간엔 양자키 경로를 실시간 재설정하거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해 키 삭제 및 해킹 구간 우회 제어 등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 장비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KT가 고유 표준으로 제정한 TT 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적용했다.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표준과 ‘개방형 계층구조 표준’도 반영했다.

향후 양자암호 네트워크가 전국 단위로 확장할 경우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더욱 손쉽게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은 2021년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네트워크 시범망 구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김순복 기자 sunbok@

LGU+, 빅데이터 센터 국책사업 선정

헬스분야 빅데이터 센터 구축

LG유플러스가 정부 지원을 받아 빅데이터 전지 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 ‘라이프로그(헬스)’ 분야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책과제는 산업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유통 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라이프로그를 비롯 금융, 유통·소비 등 16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순복 기자

메타버스 활성화 위해 유관협회 뭉쳤다

KoVRA-MOIBA, 협회 통합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설립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가 힘을 합친다. KoVRA와 MOIBA는 양 협회를 통합하고 한국메

타버스산업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양 협회는 통합협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협회 통합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회원사를 확대함으로써 메타버스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강준혁 기자

푸조, 전기차 구매 고객에 지원금 쏜다

전기차 1주년 기념... 최대 200만원

푸조가 자사 전기차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푸조는 8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특별 구매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푸조 e-208과 e-208 SUV(사진)는 푸조가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순수 전기차로, 세그먼트를 초월한 고급 소재,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두루 갖춘 점과 합리적인 가격을 주무기로 수입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푸조 전기차의 성공적인 국내 전기차 시장 안착을 기념하고, 소비자들 더욱 합리적인 조건으로 푸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